

문화예술교육 맞춤형 지원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프로그램 개발 등 위한 지원 사업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28일까지 2023년 전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총 5개다.

먼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과 교육대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주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도내 30개 내외 문화예술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단체별 1,600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가족이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내 30개 내외 문화예술단체·기관을 대상으로 단체별 1,800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이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기획능력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문화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시달별 2,700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도내 문화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마지막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올해 첫 공모가 시작되는 신규 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수혜의 기회 제공 및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은 장애인 대상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역량을 지닌 도내 3개 내외 문화예술단체·기관을 선정하며, 단체별 1,600만 원을 균등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의 공모문을 통해 신청 자격과 지원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s.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61~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박물관, 문체부 지원사업 3개 부문 선정

학예·교육·예비 학예 지원사업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3개의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박물관이 올해 선정된 박물관 사업은 학예 인력 지원사업, 교육 인력 지원사업, 예비 학예인력 지원 사업 등 3개 부문이다. 학예·교육·예비 학예 지원사업은 전문인력의 업무 능력 강화와 박물관 실무경험을 제공해 전문성을 갖춘 학예 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전주대 박물관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전문인력 3명을 지원받는다.

특히 성과를 인정받아 학예 및 교육 우수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박현수 학예 연구실장은 "올해도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대학교 박물관 체력 사진

노력할 것"이라며 "경력 인정 대상 기관으로 굳에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근현대 전북미술사 구축 위한 소장작품 구입 공고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전북미술사 구축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2주간 소장작품을 공개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2000년 이후 동시대 미술 작품을 위주로 소장품을 수집해왔으며, 구입 작품 중 2000년 이후 작품의 비중이 84.8%에 다다른다. 동시대 제작 작품에 비해 20세기의 작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러한 소장품 연대별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소장품 구입 공고에서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제

작된 전북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매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소장품 수집은 보다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공모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집 작품추천회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총 2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구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이애선 관장은 "보다 공개적인 소장품 구입을 통해 전북 지역의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번 공모가 근현대 전북미술사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매도 신청 자격은 작가 혹은 소장자 개인, 작가의 유족, 화랑, 법인으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 등 기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다. 소장품 수집 공고 전문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j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학예연구팀(063-290-6874)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이미자 노래 인생 60년 기념 음악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기획공연 18일 감동의 무대 선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 마련한 '2023 이미자 노래 인생 60년 기념 음악회'가 18일 오후 3시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한 이미자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대변해 온 트로트 가수다.

14일 전당에 따르면 이미자는 1964년 '동백아가씨'가 히트를 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정착한다. 60년대 그녀는 대중음악의 아이콘이었고, 그 당시 한국전쟁 이후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던 여가수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이미자 노래 인생 60년 기념 음악회'에서는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사의 찬미, 삼마를 선생님, 여자의 일생, 흑산도 아가씨, 열아홉 순정 등을 직접 들으며, 힘들고 삶의 무게가 버거웠던 부모님 세대의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시절을 위로받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한편 특별 게스트로는 '동백아가씨'를 들고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독일 출신 트로트 가수 로미나가 무대에 오르고, 가수 출신 베테랑 MC 이택림이 진행을 맡



는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70-783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인문도시센터, 근현대 전북잡지 해제집 출판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센터장 오원환 미디어문화학과 교수)가 한국로컬리티총서1 '근현대 전북잡지 해제집(1900-1980)'을 출판했다.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된 인문도시센터는 '근현대 로컬리티 잡지 수집 발굴 해제 및 DB화'라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다. 1단계 3년의 연구기간동안 전북, 광주·전남, 제주지역의 잡지를 수집 및 연구했다.

이번에 발간한 근현대 전북잡지 해제집(1900-1980)은 1단계 1년차 연구 성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센터장 오원환 교수를 비롯해 총 14명의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했고,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공종구 교수와 문학평론가 최명표 박사가 감수를 맡았다.

책에는 전북지역 잡지 164종의 표지와 목차, 판권지 사진 등이 담겼고, 각 잡지의 발행 정보와 취지, 저자에 관한 정보, 지면의 특성 등 매체에 관한 설명을 함께 실었다.

센터장인 오원환 교수는 "로컬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잡지를 데이터베이스



근현대 전북잡지 해제집 표지

이므로 구축해 로컬리티 한국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도시센터에서는 해당 서적을 시작으로 1단계에 작업한 광주전남·제주지역 잡지 해제집을 연이어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